

새로운 시대정신

New 'Zeitgeist'

이정수 / 호서대 건축설계전공 교수
by Lee Jeong-Soo

우리가 처한 현실

최근 공영매체를 통해, 대형 백화점과 외국계 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활을 건 전쟁'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대형 공룡들의 전쟁 사이에서 자신의 살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과 지역밀착형 구멍가게의 대응책을 지켜보면서, 건축계의 실정 또한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입장만은 아닌 듯 싶다. 사실 건축설계업계에서도 이러한 4각 구도는 엄연히 존재하며, 최근 IMF 이후 국내 설계시장의 전모는 이러한 유통시장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이후 제기된 전문가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문제는, 대학에서의 설계교육 시스템으로부터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사회 제 분야에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건축설계분야를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고통을 내부적으로 감수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있다. 바로 몇 년전 '서유견문록'에 못지 않은 충격으로 서구건축기술을 국내에 소개하는데 일역을 담당하였던 국내 대형설계업체는 최근 비만한 체중을 감량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으며, 전문화되지 못한 기술력이지만 다양한 영업품목으로 그런 대로 호시절을 구가하였던 중소설계사무실은 차별화되지 못한 정체성 부족의 영향을 톡톡히 겪고 있다. 또한 건축시장의 한편에서 스스로 하이레벨의 부티크임을 강조하였던 작가 사무실은 외로운 투쟁의 길을 가야하는 형편이 되었고, 서민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일선 소규모 설계사무실은 뚜렷한 영업품목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고도성장 속에서, 뚜렷한 자기 정체성 부여나 자리매김에 소홀하였던 지난 시절의 업보인지도 모른다.

건축허가면적(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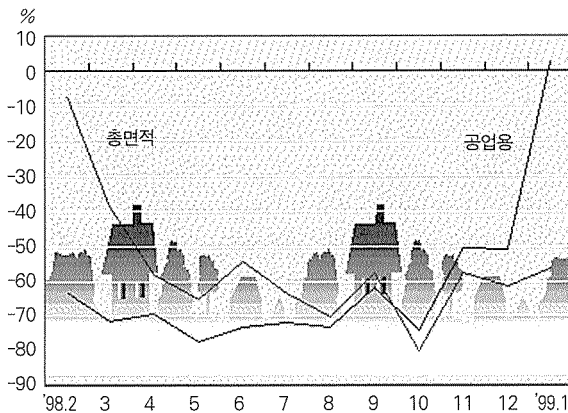


그림 1. 건축허가동향(자료출처 :통계청)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1. 인구(백만, 1997)	45.99	126.2	267.9
2. 1인당 국민총생산 ¹⁾ (1997)	10,307\$	29,964\$	33,289\$
3. 등록 건축사수(인)	약 6,933 ²⁾	140,500 ³⁾	62,000 ⁴⁾
4. 건축사 1인당 인구 (인구/건축사)	6,634명	898.2명	4,321명
5. 건축사 1인당 국민총생산(천\$) ⁵⁾	68,371.4	26,914.3	143,840.7

1) 통계청 자료, 1998년 한국의 국민1인당 총생산은 6,823\$ 일.
2) 등록 건축사수임(1999년 5월). 발급된 건축사자격증 수는 11,287 명임.
3)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의 회원수(1998.4.). 1급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는 271,231(1996년 말, 住宅局 建築指導課 자료)임.
4) AIA members(www.e-architect.com/institute/membersrv.asp 참고).
5) (인구 x 1인당 국민총생산)/건축사수

표 1. 각 국가별 건축사수 분석

사실 건축사집단은 직업분야에서 의사·변호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에 속한다. 미국에서 이들은 전문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배출되는 전문가들이다. 국내에서 최근 이러한 집단이 처한 공통된 특징 중의 하나는 모두 외부로부터 자격을 갖춘 인원선발을 늘리도록 압력을 받아왔다.

건축사의 경우 1993년 이후, 사회적으로 필요한 건축사 숫자의 절대부족과 사회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적절한 건축설계 공급의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기초로 건축사시험의 대변혁이 시도되었고, 매년 약 1,000여명의 건축사들이 사회에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전환은 건축사가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자격증으로 치부되었던 시대로부터, 사회참여적 성격이 보다 강조되고 문화의 창조자로서 건축사를 바라보는 인식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IMF 이후 발생한 원천적인 일감부족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늘어난 건축사수가 상대적 경쟁격화와 체질전환을 부채질한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사실 건축사수의 증가는 일반인들에게는 양질의 건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건축사들에게는 부족한 일감을 늘어난 건축사들이 나누어가져야 한다는 밥그릇 싸움의 심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건축관련학과와 신설추세를 들여다보면, 향후 이러한 경쟁체제는 더욱 격화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1993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68개 대학에 74개의 건축과가 있으며, 입학정원 4,890명(총 재학생 19,186명)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대한건축학회, 1994.3. 자료). 하지만, 1994년 이후에도 많은 건축관련학과들이 지속적으로 개설되었고, 2,010년 무렵이 되면 이러한 인력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전문인력으로서 사회에 배출될 것이다. 건축사자격인정제도의 여파로 건축사시험제도의 변화, 그리고 다수 대학의 건축설계전공과정의 5년제로 바뀌어지는 등 건축설계관련 분야에서의 변혁, 그리고 경제의 회복과 성장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시기에 이르면 건축사수 대비 인구규모, GNP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의 건축설계시장의 현실은, 각국의 건축사수의 변화와 경제규모, 인구 등을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여건으로 보여진다. 실제적으로, 향후의 상황은 인구대비, 건축사 1인당 GNP 등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건축사는 약 70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1급 건축사가 약

30%, 2급 건축사가 70% 미만, 그리고 목조건축사가 약 2% 정도를 점하고 있다. 이들 중 70% 정도가 건축설계·공사감리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적산·구조, 설비, 조사·감정, 연구·교육, 행정 등에 종사하고 있다(조경, 1999.2). 또한 매년 약 7,000명의 1급 건축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1996년말 1급건축사가 271,231명이 있다. 그 중 약 140,500명의 1급, 2급, 목조건축사가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무리 경제대국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건축사의 수는 사실 우리의 경제규모, 인구에 대비해 보면 매우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많은 건축사들은 다들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 것인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IMF라는 상황이 가지고 온 일감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건축전문가로서 건축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할 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건축설계 패러다임과 건축사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건축설계 패러다임에의 적응

1) 지방화시대

다들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지방화시대'가 시작되었다고들 한다. 물론, 사회 제반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시도지사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 특산물을 홍보-1979년, 일본의 오이타(大分)현의 지사인 히라마쓰 모리히코(平松守彦)가 제창하였던 '一村一品' 운동이 지방의 특성화를 모색한 그 원조적 사례이다-한다든지, 지역축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일은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지방화와 더불어 제기된 "지역이 지닌 개성을



그림 2.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주거재개발(코포 愛宕)

되찾자'는 '지역운동' 및 자신이 소속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 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자극을 받아, IMF 이전의 지난 몇 해 동안 서울에서 개업을 고집하던 이제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무실을 개업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지방화와 더불어 진행된, 각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건축전문가의 U-turn 현상은, 지방 건축계에 이미 내재된 건축역량에 또 다른 동기부여를 가함으로써 지역 건축문화 창달에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미 이러한 기운은 싹트고 있다. 건축사에 게재되고 있는 "지역건축탐방", 그리고 "지역성 탐색을 위한 대토론회(1999.3; 충북건축사회)" 등이나, 각 지역의 풍광과 문화특성을 살린 건축물을 찾는 "98 칠십리 건축작품 공모"(1998.5; 서귀포시) 등과 같은 건축상 시상 등은 이러한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준농림지에 건축되는 초고층아파트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외지인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공습하듯이 이루어지는 개발방식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할 주민들의 정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각 건축사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풍경에 합치되는 도시환경을 창출하는데 크나큰 책임을 맡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이는 단순히 건축사들만의 몫은 아니며, 그 지역의 건축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을 기본전제로 한다.

과도한 밀도와 획일적인 아파트 개발방식으로부터 지역의 고유한 풍경과 가치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적절한 개발방식-지역의 고유한 환경을 반영하는 주택지 조성을 도모하는 'HOPE(Housing with Proper Environment)' 계획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진정한 지방화 시대의 건축문화는, 지역에 밀착하여 활동하는 '지역 건축사'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2) 환경중심의 시대로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대두되는 공해시설의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은 사실 지방자치에 따른 부작용이지만, 환경개념의 대두-도쿄도의 '쓰레기 전쟁'은 1971년 가을에 시작되었으며, 주택지에서의 일조권을 비롯한 환경권 개념의 대두는 이미 1970년대의 일이다-와 더불어 한편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특히 국내에서도 건축물과 관련하여 미산시 문신미술관 조망권 문제(1994.10.14), 범어사 입구 고층아파트 건설에 따른 마찰(1995.1.11.), 유달산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6~15m) 지정(1995.10.13), 봉은사 입구 고층건물(19층) 공사중지 명령(1994.6.3) 등과 같이 '조망권'과 '문화 환경권'에 대한 분쟁이 제기되는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물리적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는, 1992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루의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아젠다(Agenda) 21', 1997년 12월 '교토 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건축관련 분야도 건축폐기물량의 억제, 에너지 사용량 억제 등 실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건축설계시장에서도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유명무실하였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새로운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설계 기술적 측면에서도 에너지 절약기술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의 적극적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개념의 대두는 포괄적인 환경보전형 도시 시스템 내에 건축물이 존재하며, 필연적으로 건축설계 과정에서도 환경기술, 재활용(리사이클링) 기술이나 생태건축에 대한 기술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기술의 적용은 단순히 신축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과 관련하여 개조(Reform) 시장의 새로운 전개를 예견할 수 있다. 환경규제에 따른 건축재료를 비롯한 전반적인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인하여, 기존의 신축 위주의 시장형성으로부터 개조 시장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즉, '생태건축'이나 '건축 재료의 리사이클링' 기술이 주제가 된 건축물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 패러다임이 건축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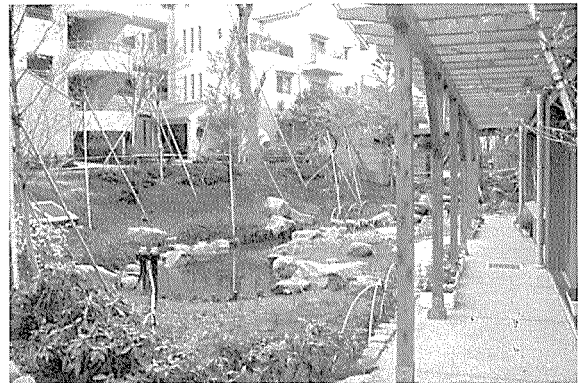


그림 3. 환경생태주택내의 습지(후쿠자와 집합주택, 도쿄)

3) '배리어 프리'의 시대로

일본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의하면, 2025년이 되면 일본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5.4%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에의 진행은, 실버시장의 실현과 함께 주택건설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사실 배리어 프리는 건축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및 복지분야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중, 고령자와 장애자를 배려한 주택의 문제는 모든 생활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점이다.

실제적으로 '배리어 프리'는 장애를 없앤다는 의미이지만, '배리어 프리 주택'이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한 주택이자 계속해서 삶을 영위할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부모와의 동거를 전제로 한 2세대 주택으로부터 노후생활을 전제로 한 주택에 이르기까지 적용가능한데, 주택설계 및 공급과정에서 '배리어 프리'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건축설계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주택금융공고에서는, '고령자·장애자 대응 주택 활용용자제도'를 두고, 고령자와 동거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거나, 고령자 생활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의 단차를 없애거나 욕실,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자를 더 확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유형에서도 개념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 세대는 30~40대가 대부분이지만, 가족중 특별히 고령자나 장애자가 없는 경우 자신의 노후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을 짓거나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향후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자신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택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실버타운'의 개념에 의해 집단적으로 노인촌 또는 노인휴양소와 같이 별개의 특정한 건축양식으로 생각하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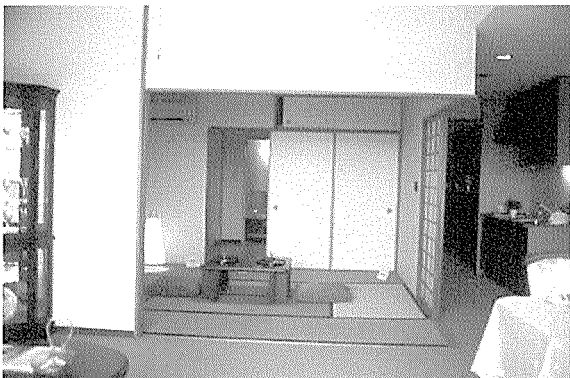


그림 4. 배리어 프리 개념에 의한 단위주택의 내부(나카긴 케어센터, 지바 뉴타운)

변에서 항상 같이 있는 보편적인 건축원리로서 '배리어 프리' 개념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배리어 프리 주택은 고령자와 장애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없이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배리어 프리 주택에서는 지금까지 설계와 건설과정에서 건축의 고유한 분야로 여겨져 온 지식이나 기술로부터 탈피하여, 전혀 새로운 사고와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 일선의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재료업체에서의 약진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4) 조경 및 도시디자인의 시대로

최근 학문의 세분화와 더불어 사실 대학에서 건축교육은 도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못하고, 오브제 중심의 형태나 공간교육에 급급한 실정이다. 도시는 건축을 담는 그릇이고, 또한 개개의 건축물의 집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건축은 건축으로서 존재할 뿐이고, 도시는 도시계획가의 손에 내 맡겨져 있는 듯하다.

고도성장기의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화로 도시는 경제나 산업의 논리에 의한 개발되었으며, 기능이나 효율을 추구하는 곳으로 간주되었다. 농촌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개발'은 중요한 목표이었고 초고층아파트는 지역발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도시는 달라져야 한다. 기능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종래의 도시관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난개발에 의해 자연과 역사를 상실하고, 무개성으로 매력 없이 사라진 도시의 존재방식은, 먼저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실 '양'으로부터 '질'을 추구하는 발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생활을 제대로 바라보고자하는 움직임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방송매체에서도, 도시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경관이나 풍경이라는 어휘가 주요한 키워드로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즉,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가 휘몰아쳤던 지난



그림 5. 공개공지 위치조정을 통하여 마추보도록 배치된 페어광장 (요코하마 아바시타 공원)

날에는 개개의 도시의 역사를 무시하고 제로로부터 새롭게 계획하는 도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에는 도시의 역사나 공간구조, 그리고 경관으로부터 기초하는 도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도시시설만으로는, 매력적인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지역에 어울리는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 본격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 세기는 확실히 도시 및 조경의 시대가 될 것이다. 많은 곳에서 도시설계적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도시환경을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하는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디자인 뿐만 아니라, 집합주택단지 설계과정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IMF 이후, 이제까지의 통념을 깨고 지상에 녹지를 조성한 한 아파트 단지가 절찬리에 분양된 경우만 보아도, '조경'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단지설계가 수법적 측면에서 코디네이터 또는 마스터 아키텍트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 디자인적 컨트롤 수법·디자인 코드나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의해, 이제까지의 독립된 '단지' 중심의 사고로부터 '단지'의 경계를 넘어서 '도시'로 확장되고 있다.

국내의 건축설계 분야에서도 '도시읽기'라는 어휘가 상징하듯이, 건축물이 도시를 배경으로 어떻게 위치하는가가 중요한 테제로 등장하고 있다. 점점 건축가의 사고 속에서 도시의 역사, 문화에 대한 배경읽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고립된 '섬'으로서 격리된 디자인 사고로부터 벗어나, 도시어로 열린 그리고 조경 및 환경디자인을 이해하는 건축설계적 사고가 요구되어진다.

5) 정보화사회로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그림 6. 마스터 아키텍트에 의한 집합주택단지개발 (벨클린뉴 미나미오사와, 도쿄)

추진을 위하여 건설정보화사업(건설 CALS, Commerce At Light Speed)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를 통하여 건설공사비의 절감을 모색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보화가 건설산업의 효율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건축설계 분야는 사회 제반에서 제기되는 '정보화'의 추세에 대하여, 여전히 예술로서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고 애써 태연해 하려는 듯 보인다.

실제적으로 '정보화'가 건축사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 하나의 가능성은, 설계사무실 운영에서의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개념의 도입이다. 작년 겨울 어떤 모임에서 건축설계관련 소장으로부터 건축관련 각 분야의 생산성에 대한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설계·구조·인테리어·건설 등 각 분야에서 연간 수주액과 종사 인원 대비로 생산성을 계산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1인당 어느 정도의 수주액이 있을 경우 현재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그 동안 축적된 개인별 업무실태 및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즉, 정보화는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객에게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 사실 일반인에게는 '집을 짓는다'는 행위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때로는 건축주들이 상당히 망설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를 조합하여 많은 사전지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설부른 지식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서비스로는 건축주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건축설계시장에서의 '원 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가 필요하다. 이는 망설이고 있는 고객에게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를 통하여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축사의 업무가 단순히, 조형적으로 아름답고 상징적인 공간만을 제공하는 시대로부터, 부동산 동향이나, 세금문제, 그리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의 유지보수, 관리비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풍부한 지식과 객관적 근거에 의거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사실 우리는 설계사무실을 찾아오는 보험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개개인의 연령, 연봉 등에 따라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금전적인 부담을 담은 서비스 시트를 제공받은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

협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즉, 건축사의 업무도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건축주가 생각하는 건축물의 규모, 비용, 경비조달 방법 등을 듣고, 건축계획, 자금조달 계획, 세금관계, 향후 건축물 관리계획 등을 담은 시트를 제시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은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다.

셋째, 사이버 시장에서의 세일즈이다. 인터넷은 이미 사이버 잡지(webzine: <http://www.archforum.com/>)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공모전에서도 "사이버가수를 소재로 한 아담의 산책"(1998.3: 공간학생건축상)이라는 주제가 제기되는 등 점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 전문가들에게도 이러한 건축 정보화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어 진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건축관련 상담코너-사이버 건축사의 등장-의 개설이다. 가끔 의뢰기관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인터넷 종합병원 또는 '사이버 가정의' 라는 코너를 볼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환자의 다양한 고민들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의사들의 성실한 조언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가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소규모 의원 특히 가정의를 전공으로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건축설계시장에서도 사이버 건축사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로서 연결 가능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의 제공 및 신뢰성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건축적 행위를 결정하는 건축주 연령이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한다면, 당장에는 프로젝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이버 세계에 익숙한 이들이 머지않아 사회의 주축이 될 것이며, 사이버 세계를 통한 건축서비스가 보편화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림 7. 건축사·변호사·교수 등이 참여한 NPO활동 (세타가야 마찌초쿠리 센터, 도쿄)

건축사의 새로운 역할 모색

1) 건축사의 사회참여

일본에서는 지난 3월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시행되어, 이제까지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시민참여와 볼런티어에 의한 주민활동이 법적틀내에 위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고베대지진의 복구과정에서, '주택재건'을 지원하는 건축사를 비롯한 변호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 많은 전문가 볼런티어 그룹들이 참여하여, 지진 후 극도로 혼란상태 빠진 도시를 재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두된 법제나 세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 공인법인의 관계, 그리고 이상론과 현실론의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정식으로 NPO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건축사들의 역할이다. (사)일본건축사연합회(<http://www.aec.or.jp/user/aba-net/>)는 1997년 1월 '건축사관 NPO'로서 '지역공헌활동추진센터'를 출범시켰다.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 건축사회의 '지역공헌활동추진센터'는 자금후원, 기금모집을 시작으로, 건축사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활동단체에 자금·기술·정보 등을 조성·지원하고 있다.

즉, 건축사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발적인 지역 볼런티어 그룹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술적인 문제점을 협의하는 등, 건축사가 행정관청과 시민 사이에서 유희유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사의 지역 활동은 다음 세기에 부각될 새로운 '건축사의 모습'으로 기대되어진다.

즉, 21세기의 지역사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스스로의 활동에 의해, 지역의 거주환경이나 삶의 질을 고양하여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



그림 8. 지역주민들의 제안(마찌초쿠리센터, 도쿄)

회 문제의 결정권은, 지방자치제 이후 이미 그 지역의 주민에게 옮겨가 있다. 따라서,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건축사의 역할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건축전문가의 사회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서울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시민건축대학”(1999.5), “건축·만화·재즈의 만남”(1999.5) 등과 같이 건축이 사회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곳에서 보여진다. 특히 지방에서 일반인들이 건축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모하는 “건축 백일장 '98”(1998.9; POAR건축 주관, 인천), “울산 유치원생을 위한 어린이 건축가 대회”(1998.5; 울산대학교, 울산) 등과 같은 행사들은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1992년부터 시작된 집없는 저소득국민자들을 위해 집지어주기 운동의 하나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건축사 집단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진다.

이러한 활동, 즉 건축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얻는 것은 신뢰성일 것이다. 지역사회에의 공헌을 통하여 사회적 신뢰를 얻고, 교제의 폭 및 업무분야의 확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업무분야의 확대는 건축설계나 건축공사의 수주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풍경이나 경관형성을 위한 다양한 구조물의 디자인, 예를 들면 가로등, 다리, 가로의 보도 디자인 등 건축사의 미학적 감각을 활용한 제안들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의 활동범위의 확대를 포함한다. 즉, 보다 지역에 밀착된 건축사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 지역건축사의 가능성

최근 의료계에서는 의료진료 시스템의 측면에서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의 소규모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정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는 사실, 지역에서 각 가정의 병력이라든지 각 개인이 지닌 특성을 잘 알아서,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발병시 각각의 증상 및 개인의 조건에 적합한 처방을 함으로써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이다.

법률서비스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로펌과 같은 대형 사무실도 존재하지만, 점점 소규모 지역 법

률서비스사무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실례를 들면, 각 지방마다 현지에 파견된 간이법정이 있어, 사소한 법률심판의 경우 본 법정에 이르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법률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건축사들에게도 하나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즉, ‘지역 건축사’의 가능성이다. 각 지역에 도착화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가서 건축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그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기관으로서의 건축사사무실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제공한 건축적 서비스가 ‘계약’이라는 법률적인 절차에 이르기까지에는 매우 험난한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극단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다른 건축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건축서비스를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로 비용화시킨다면, 계약이라는 한가닥 희망을 향해 무보수로 일관되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관례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규모 단위의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 100%의 설계 및 감리비가 요구된다면, 단순한 건축상담의 경우 3%, 법률적인 검토를 수반하는 기본계획안의 경우 7%, 건축허가를 위한 준비의 경우 10% 등... 각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리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대지를 구입할 경우나, 신축이나 증축을 생각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여건에서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건축이 가능한지,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 사전에 가능한 검토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지역 건축사의 가능성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지역중심의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이다. 사실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인구밀집지역인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의 중소도시는 이러한 건축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사의 활동이 점점 요구되고 있다. 즉, 서울이나 지방의 작은 도시나 건축사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사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을 잘 이해하는 건축사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NHK TV에 방영된 한 일본 건축사의 사례를 보면, 물론 이 건축사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는 하지만, 그는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의 작은 집수리로부터 신축에

* 1992년 창립된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는 집없는 저소득 국민자들을 위해 집지어주기 운동을 하고있는 대표적 비정부조직으로서, 이는 1976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적 비정부기구(NGO) 해비타트(HABITAT)의 한국지부이다.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심과 노력에 의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작업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집수리'에 해당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몇 년 전부터 건축사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건축사면하는 '미장이' 면허"라는 말로서 불만을 높인 적이 있었다. 역설적으로 건축사가 점점 '미장이'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장이'는 자신이 소속된 지역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고, 골목마다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지역 건축물에 대해 소상하게 잘 알고 있다. 건축사 역시 이러한 지역과 밀착된 서비스 시장의 침투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도는 양질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원 맨 스튜디오'의 가능성

과거, "건축 설계 사무실의 급여가 왜 이리도 작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흔히 "건축은 장인과 도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힘들게 굶어가면서 배우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일이 많다가도, 당장 내일부터 6개월이고 1년이고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들곤 하였다.

IMF 이전 건축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건축사 보조원의 처우는 많이 개선되었다. 대형 건축설계사무실의 경우는 대기업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IMF 이후 이러한 호시절도 춘삼월 한때처럼 지나가고, 대량해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그 많은 직원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건축사와 몇몇 사람들만이 앉아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위 '원 맨 스튜디오(One Man Studio)-나홀로 사무소'의 가능성이다. 즉, 건축설계 업무가 진행되는 초기에는 혼자 힘으로 상담 및 업무진행을 하다가도, 그 일이 본격화되어지면 각 프로젝트 별로 '프리랜서(Freelancer)'로서의 기술자 집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상위집단만이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인력시장의 탄력성이 높아지면 중급기술자의 인력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인력시장의 경직화는 경영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준다. 반면에, 인력시장의 탄력성이 높아지면, 설계사무실의 보조원 입장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반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이 없는데, 무작정 내일을 기약하고 고용을 지속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고, 일이 내일 생

길 수도 있는데 직원을 해고할 수도 없는 것이 고용주의 입장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테크니션 풀(Technician Pool)'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기술자의 집단을 형성하고, 각 프로젝트별 필요성에 따라 단기간 활용하는 시스템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주수 여부에 상관없이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중간기술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자신이 지닌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인력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기술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과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단순한 년차에 따른 경력수준과 급여책정의 문제로부터, 자신이 경험한 프로젝트의 종류와 기술수준, 그리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사협회 차원에서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축사보조원의 원활한 중개와 정보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컴퓨터의 웹 사이트의 제공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조원의 능력을 분야별, 기술수준별로 지수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난국에 처하면 많은 처방들이 난무하게 마련이다. 흔히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기투자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사실, 건축설계사무실의 고통은 극한에 와있는데, 무슨 자기투자를 논할 수 있겠는가. 건축사협회의 설계도서 신고현황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은 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작년 3월 대비하여 마이너스를 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IMF 시대의 종식 이후에도 '건축사'라는 전문가의 길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규모가 작은 접점은 특색을 보여주지 못하면 고객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라는 가장 평범한 진리로부터, 건축설계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건축사들이 다음 10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鹽見 寛, 動き出した建築士版NPO・地域貢献活動の状況と展望, 造景19, 1999.2
- 日経, 70年代に學ぶ危機の時代の過ごしか, 1998.8
- 조창현 외, 지방자치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 보림, 1997.9.
- 이호철,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1996.12.
- 대한건축학회 건축교육위원회, 국제화시대를 맞는 우리건축교육의 선진화, 1994.3.